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7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맥추감사절 · 사사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7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맥추감사절 · 사사기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 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만방에 뿌려질 말씀의 씨앗에 감사



벌써 무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시작되더니, 장마와 더불어 강렬한 태양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노동의 욕구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의 씨앗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들을 뚫고서 더욱 힘있게 전해져 왔습니다. 복음은 온갖 핍박과 가난, 질병과 재난, 추위와 더위를 넘고 모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올 여름에도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농어촌과 낙도 오지로,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씨앗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올 여름에도 복음과 함께 땀을 흘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활 계획이 분주해질수록 더욱 마음을 모아 구역에서 가정에서 든든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시는 신앙의 노력과 열매를 기대합니다.

1999년 7월

위임목사 김성관

충현의 만나

1999년 7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사사기 서론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죄악에 젖어 들어갔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다. 사사기는 이렇게 범죄-징계-구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메시지는 구원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들은 끝내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권면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때(1:1)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블레셋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던 시기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다(21:25).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볼 때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정치적 타락을 지적하는 한편 오직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서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은 첫째, 인간들의 유한성(나약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모세가 우려했던 대로(신 31:27-29)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셨다. 둘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어서 홀로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보여 준다. 결국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그들의 운명이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웃니엘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는 사무엘을 끝으로 마감이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로 혹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했으며, 그들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러나 사사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사사들은 때로 그들의 사역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점이며, 사사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요청했지만, 그리스도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사기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내용 흐름

서 론 / 1:1-3:6 사사 시대의 배경

1.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 / 1:1-36
2. 이스라엘의 타락 / 2:1-2:23
3. 하나님의 심판 예고 / 3:1-6

본 론 / 3:7-16:31 사사 시대의 역사

1. 웃니엘, 에훗, 삼갈 / 3:7-31
2. 드보라와 바락 / 4:1-5:31
3. 기드온, 돌라와 야일 / 6:1-10:5
4. 입다, 입산, 엘론, 압돈 / 10:6-12:15
5. 삼손 / 13:1-16:31

결 론 / 17:1-21:25 사사 시대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쓰심으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구원의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을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원의 힘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술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습니다. 하술은 이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성읍입니다(수 11:10 이하). 그런데 그 성읍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힘이 나온 것입니다. 더구나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승이나 가졌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철기로 된 무기를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자는 여선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여성 지도자란 너무나 희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앞에 서 있습니까?

순종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철 병거 구백송을 거느리고 자신만만하게 출정했던 하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장막에 거하는 한 여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헤벨의 아내입니다. 헤벨은 장막에 거하는 자로서 평소에 하솔 왕 야빈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17절). 따라서 그는 타지방 사람으로서 한 족속의 왕과 친분을 누릴 정도로 큰 목축업을 경영하는 부호였던 것 같습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피신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남편과 하솔 왕 사이의 친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솔 왕의 군대장관을 죽임으로 전쟁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경외감이 아니고서는 그녀의 그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야엘에게 전혀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속에서 확신되는 행동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단력있게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선한 도구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대대에 전해지게 하심으로 그녀의 일생을 영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한 도구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 아 잊으랴 …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 이는 6.25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들으면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쓰라린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끝에는 대체로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는 현재의 극적인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드보라는 전사로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에 앞서 싸우신 하나님의 사건을 노래합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절대로 잊혀지면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래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넘어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로를 놓아두고 소로로 다닐 만큼 이방의 압제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지냈지만(6절),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용사들을 치시려고 강림하셔서(13절) 천동 번개와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셔서 기온강가에 모인 시스라의 철병거 구백송을 단숨에 쓸어버리셨습니다(20-21절).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도록 도와 주는,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 있으십니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케 해주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기억은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 줍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송 / 306장 본문 / 출 23:16

오 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봄작물 추수감사제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릿단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바치는 행위'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격의 축제였습니다. 남의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노역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자기의 땅을 소유하여 손수 농사를 짓고 결실을 얻어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유월절로부터 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불렀는데, 양력으로 치면 5, 6월 경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감사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자주 망각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곤 하는 연약한 우리가 다시금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풍요 속에서 더 많이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진정한 감사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회복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옵니다.

▶ 기도 제목 / ① 저의 입술에서 감사만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ㄷ 보라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40년의 평화를 획득했지만, 그들의 반복적인 범죄는 또다시 고통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다음 공격자는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 두라에게서 난 후손들로서(창 25:1-4)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팔아먹은 자들도 바로 미디안인들이었습니다(창 37:28). 한편 훗날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출 2:15-22).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가 오히려 대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민 31:1-12).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싯딤에 머무르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염병으로 2만 4천명이 죽었을 때, 모압 여인들 틈에는 미디안 여인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압과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더럽힌 것입니다(민 25:1-15). 이렇게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사이에는 미묘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미디안이 세력을 얻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7년간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는 결코 미묘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미디안은 왜소해졌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미디안은 날뛰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중의 권세잡은 자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사탄의 세력은 왜소해집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탄의 꾀계를 이기고 말씀 위에 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 이들은 부모님의 격려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징계가 아이들을 단련시키는 반면, 격려는 아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인 듯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격려의 대가(大家)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지배로 의기소침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즈음, 그는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11절). 그는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두려워하면서 겁쟁이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불평하면서(13절) 자신의 열등의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15절).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났던 이가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서는 죽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지없이 슬퍼합니다(22절). 삼손의 모친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사 13:23). 기드온은 그야말로 연약하고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12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고 하십니다(16절). '안심하라'고 하십니다(23절). 하나님은 너무나 세심한 격려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 기드온은 후에 정말로 큰 용사가 됩니다. 이 격려의 절정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16절)를 통해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격려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십시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 매순간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은 먼저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비롯된 것인데, 바로 바알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후에 부서진 바알산당을 보고서 동네사람 모두가 크게 격분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산당은 기드온의 집안 혹은 동네의 공동소유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상숭배는 바로 기드온의 집에서 저질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동네사람들의 반발이 어떻게 표현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실행했습니다. 바알산당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쪼개었습니다. 미디안의 7년 압제를 물리친다는 상징으로 '7년된 수소'로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나 다를까 온 동네가 들고 일어서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버지 요아스가 모든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동네사람들을 대상으로 외친 아버지 요아스의 논지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 단을 훼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 주십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종류의 집안 청소가 필요합니까?

개혁은 나와 내 집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집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훌륭하게 수행한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구합니다. 한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한번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를 비난합니다. 너무 알팎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간적 연약성 때문이라는 면에서 기드온을 동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기드온의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한번 더 명백히 하고자 하는 매우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이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드온의 요청을 기꺼이 들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 주시기 위해 기드온을 적진에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7:10-15) 당시의 상황이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에 틀림없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 있고 나서 기드온은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3만 2천명이었습니다. 미디안군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숫자를 3백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나 숫자로 나타나는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하심'의 증거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까?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계십니까.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조 부와도 같았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기드온은 3백명의 적은 군사로 대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전쟁은 '소리'와 '두려움'으로 승부가 났습니다. 나팔 소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외침소리, 그리고 항아리를 깨 부수는 소리가 미디안 진영을 감싸고 있던 한밤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황한 미디안 군대 가운데로 큰 두려움과 성급한 마음을 보내셔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날로 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은 대부분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잔류병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도망병들을 추격하기 위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향해 싸울 듯이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전쟁 초기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뒷마무리용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전쟁 앞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유치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전쟁 중 대단히 긴장했을 것이고 무척 지쳤을텐데도, 에브라임의 웅석 앞에서 그들을 지극히 높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달랠니다(8:1-3). 그야말로 성숙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성숙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제 전쟁은 마지막 한 고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만 잡으면 전쟁은 종결됩니다. 따라서 기드온과 3백명의 군사는 몹시 지쳤지만,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추격 중 숙곳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숙곳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는 이스라엘 거민인지 가나안 원주민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에게 스스로없이 떡덩이를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거민은 갓 자손들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숙곳사람들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기드온이 전쟁에서 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썩빠르고 계산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브누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누엘은 브니엘의 다른 명칭인데, 이곳 역시 갓 자손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알파하게 움직이는 이들의 계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기드온에 의해서 징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신의와 인간적인 계산 사이에서 어느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최선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칭찬하면 좀 우쭐거리는 면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내심 반가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구원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해서 괴롭혀 왔던 미디안을 멸망시키고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함으로써(18-21절), 이스라엘의 대적은 사라지고 평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자인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안이야말로 기드온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강조”(22, 23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기드온의 겸손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평생에 자신의 거둔 승리는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칭찬이나 인정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도적질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나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계 15:3, 19:6).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인데 그 이름의 뜻이 '바알과 싸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바알의 단을 훼파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되돌렸지만,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르지도 않고 죄악된 길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난 기드온의 소생(8:30, 31)입니다. 그는 교묘한 말로 세겜 족속을 포섭하고(1-3절),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살해했습니다(5절). 그리고 세겜의 모든 족속들로 더불어 상수리나무 아래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기드온이 실제로 있어서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는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의 학살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5절)은 우화를 통하여 아비멜렉의 죄악에 동참한 세겜 족속의 죄악을 통렬히 꾸짖고 있습니다. 왕 되기를 거절한 나무들의 비유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겸손한 처신을 상기시키면서,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20절).

죄인과 동행하는 것은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말씀으로만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그 죄악은 반드시 찾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를 추종하여 함께 악을 도모하던 세겜 족속들을 찾아 징벌하십니다. 먼저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간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십니다(22-25절). 그 결과 가알을 중심으로 한 세겜 족속과 아비멜렉군간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는 세겜 족속의 도움으로 정권을 찬탈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23절). 아비멜렉이 이전에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도록 만든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역하여 일어나고 자신을 왕으로 삼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가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가알의 반역으로 3차에 걸친 전쟁의 결과로 세겜 족속은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맙니다(34-49절). 그리고 아비멜렉은 계약 파기의 뜻으로 그 성을 헐고 그곳에 소금을 뿌립니다(45절). 비록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사력으로 세겜 족속을 멸절 시킴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대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그 중에 우리들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간과하거나 멸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비멜렉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세 겐 족속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비멜렉을 심판하십니다. 그가 전쟁으로 세겐 족속을 진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전쟁을 통해 아비멜렉을 진멸하십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또다시 데베스 성읍을 공격합니다. 데베스는 세겐의 정북쪽에 위치한 성읍으로서 이 전투에서 아비멜렉은 치욕스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수 7:3) 그는 조그만 성읍인 데베스를 공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쉽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데베스는 생각보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으므로(51절), 아비멜렉은 화공법(火攻法)으로 공략하기 위해 망대 가까이 다가가다가,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위쪽에 맞아 그의 두개골이 깨어졌습니다(53절). 아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치욕스런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삼하 11:21). 아비멜렉이 맞은 최후의 이야기는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은 또다시 새로운 악만을 낳을 뿐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하기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이런 흑암한 시대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빛이며 이 빛은 어두움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흑암한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편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흑암한 곳에 주의 복음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사기의 전체 흐름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시작되고(6절) 배교에 따른 곤고함이 따라오고(7-9절) 회개와 새로운 출발(11:6)이 뒤따르는 악순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비멜렉의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이를 만만하게 본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집단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들이 곧, 돌라(1, 2절)와 야일(3-5절)입니다. 그러나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자 그들은 또다시 주변 이방들이 섬기던 우상 앞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이웃 나라인 암몬과 블레셋에게 붙여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6-9절).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합니다(10-16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잘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징계가 있기까지는 쉽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나 지위나 재산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삼상 16:7). 입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 이방 들판에 거하던 야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기생의 소생으로 태어났습니다(1절).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입다와 함께하셨습니다(참조 창 16:11). 입다는 자신의 처지와 형편으로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이곳 들판 황무지에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훈련시켰을 것입니다(출 2장). 입다가 들판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처지가 비슷한 많은 잡류를 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3절, 참조 삼상 22:2). 하나님이 예비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암몬의 침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들판에 있는 입다를 만나 데려 오려고 합니다(5절). 이전에 이들은 입다를 아비 집에서 내어 쫓을 때 입다를 미워하여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이곳에서 입다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여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때도 입다는 여호와 앞에 모든 일들을 다 고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까(11절).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장로들의 요청으로 길르앗의 사사가 된 입다가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아르논에서 압복강까지의 요단 동편 영토권을 놓고 암몬 자손의 왕과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13절). 아마도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입다의 노력일 것입니다. 입다는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 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 결코 이방 나라를 침범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이방 민족과 충돌을 우려하여 다른 먼 곳으로 돌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실(민 20:14-21, 21:11-13)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14-18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취한 요단 동편 영토권은 암몬과는 무관한 땅이므로 이곳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여호와와의 주권 의식이 확실하였습니다(23, 24절). 그러나 결국 암몬 왕이 입다의 모든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입다의 평화적 문제 해결 노력은 무위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권면했습니다(롬 12:18).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고후 5:18-20)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평화를 위해 서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 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암몬 족속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돕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암몬과 대치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신을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29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암몬 족속들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33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삼상 28:6)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입다의 손에 붙이시므로 수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너무 쉽게 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승리 후 자신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번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독녀 딸이었습니다(34절). 입다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서원으로 희생된 자신의 딸을 위해 해마다 애곡합니다(40절).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서도 삶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연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시커먼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신앙 생활하는 형제가 나보다 월등하게 살아가면 은연 중에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위협이 되던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동안 무시를 당하고 칩거하던 입다가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노고를 치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했습니다(1-3절). 그들은 어처구니없게도 일이 다 끝난 지금에 와서 입다가 자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도와 주지 못하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화를 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부당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암몬과의 승리 후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로 말미암아 4만 2천명이나 되는 많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죽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했습니다(욥 5:2). 동족의 분발을 칭찬하지 못하고 시기하여 분쟁을 일으킨 에브라임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길르앗 족속들에 의해 “도망자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4절). 우리는 시기가 우리를 얼마나 엄청난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교훈 삼아야 할 것이며, 형제의 잘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칭찬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마음을 주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사 입다 이후 3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의 길에 빠져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하셨습니다(1절).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삼손인데, 그 탄생 전에 미리 부모에게 고지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이삭과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뿐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8절). 하나님은 기도하던 마노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생으로부터 평생을 나실인으로(민 6:1-8) 살아가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셔서도 안 되며,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며 ... 참으로 삼손은 여호와와 신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마노아 아내의 아들에 대한 신앙적 관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19절). 그녀는 단지 아이를 낳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정에 허락하실 선물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들에게도 단지 “내 아이”라는 인식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아이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을 찾으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청지기 의식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는 놀라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연약한 나머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의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하나를 보고 그만 훌쩍 반하고 말았습니다(1절). 급기야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청하기에 이릅니다(2절).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율법은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출 34:16, 신 7:3). 따라서 삼손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삼손, 그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보다는 외모에 의해 촉발된 한 이방 여인에 대한 연정이 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설명이 이어집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4절). 무슨 말입니까? 삼손의 부모는 자기 아들의 이런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연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엡 6:12). 승리의 관건은 우리가 누구 편에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비록 경솔하고 개인 감정에 치우쳤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담하게 싸웠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그들과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삼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비겁한 유다 사람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덤나로 내려간 삼손이 장인으로부터 거부 의사를 듣습니다. 몹시 불쾌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살라 죽입니다. 양자(兩者)간에 갈등이 증폭됩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삼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복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들을 미워한 것은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저지른 일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개인에게 저지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인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 하십니다(13:5).

늘 하나님 편에 섭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죄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몰락의 늪으로 빠지는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삼손은 분명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힘을 소유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1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4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통치 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기적으로 출생시키고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세월을 나실인의 서원을 어기는 데 보냈습니다. 그는 사체(死體)를 만졌고 포도주를 마셨으며 급기야는 자신의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 세 가지를 다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 모를 만큼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2절). 삼손의 몰락은 한 마디로 그의 죄, 곧 절제되지 않은 교만과 정욕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 용 하 실 수 있지만 죄는 모든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 기도 제목 / 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이 세상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삶을 삽니다. 하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신 혹은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 아래의 것을 의지하는 삶이 어리석은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본래의 흠으로 돌아가며 모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전 12:7).

그러나 불행하게도, 삼손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21절). 자신의 연약하고 황폐한 모습이 드러나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신전으로 끌려나와 수치를 당한 그는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28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의 간구를 연상케 하는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30절).

삼손은 큰 재능을 받아 많은 승리를 거두고 많은 강한 남자들을 물리쳤지만 연약한 여인의 손에 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절제되지 않은 힘, 그릇된 자공심, 그리고 악한 열정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사기 기자는 본문이 시작되는 17장부터 21장에서 당시 살았던 세 인물의 삶을 간결하게 소개함으로써 그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어두웠던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실로 이 장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신앙적,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봉착했는지 '그 단면'을 잘 보여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우상에 대한 짧은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기사에서 당시의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듯이, 율법은 우상 만드는 것을 금하며,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으며, 제사는 회막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실로의 회막에 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떠돌이 레위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하여 이 신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위해 일하는 사이비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당시의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예배의 상실이야말로 이스라엘 멸망의 숨은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참된 예배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거짓된 축복을 포기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가 사업을 통해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 리 모두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위해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시 37:23). 그러나 불행하게도 단 지파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단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수 19:40). 그러나 주변 이방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지체되자,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즉 임의대로 땅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다섯 명의 용맹 있는 정탐꾼들을 보냈으며 이들은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탐꾼들은 미가 집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형통을 약속받고 평화로운 성읍 라기스를 침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은 사람이 마음대로 옮기거나 팔 수 없는 성격의 것임을 분명한 계시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수 18:1).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잠 16:9).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 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삶 속에서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주나 영원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 순간을 위해 뇌물을 받은 사람은 평생을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보냅니다. 한 순간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찾은 사람은 평생을 비참한 신세로 보냅니다.

본문의 단 지파 또한 비슷한 경우입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단 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인에게 단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의합니다. 제의가 수락되자 그들은 그 젊은 제사장과 함께 미가의 신당에 있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취하여 갑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라기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한 성읍을 만나자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 단을 건설합니다. 그들은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침으로써 성공적으로 계획을 완수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합니다.

그러나 단 지파의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30-31절).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온 백성으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후에 단은 주전 931년에 솔로몬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왕국 여로보암 1세에 의해 공식적인 예배의 중심지로 지정됨으로써 죄악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한때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무작정의 행동은 이처럼 한 집단과 한 나라를 영원한 고통의 늪으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며 결국에는 한 나라 전체를 물들일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 늘날 우리 인간이 직면한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과학과 기술은 나날이 진전하는 데 반해 정작 우리의 도덕성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본문은 사사 시대의 잔혹한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얻은 일, 행음을 한 첩, 노인의 집을 에워싼 무리들의 동성애 요구, 처녀 딸과 손님의 첩을 내놓겠다고 한 노인의 제의, 밤새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폭행을 한 무리들,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내의 시체를 조각 낸 레위인의 태도 등 끔찍한 죄악상들이 상세하게 소개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를 당혹케 하는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잔혹한 죄악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30절). 그들은 소돔처럼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의 완전한 멸절을 초래한 그 타락이 바로 그들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죄악상들이 오늘날에도 인신매매와 번창하고 있는 향락 산업을 통해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도덕한 인간과 그 사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이 땅에 만연한 끔찍한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비록 고통이 따르다 할지라도 염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 전체로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든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죄악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취해야 할 최선의 조치는 죄를 뿌리뽑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신의 첩에 행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응징하기 위해 한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끔찍한 소포(?)를 받은 각 지파 사람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1절).

어떤 면에서 이 문제는 작은 일을 공연히 크게 확대시켜 민족적인 참사로 번지게 한 잘못된 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고자 하는 부분은 죄악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불의를 행한 기브아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 철저한 징계를 하기 위해 하나같이 합심했습니다(11절).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를 징벌하는 데 동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그냥 지나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간과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은 죄악을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자신과 공동체 내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성 경을 통해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동족과의 전쟁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심으로써 악을 제거하십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시매” (35절).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심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악을 중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경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악을 중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두번씩이나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22절) 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용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정의가 내 자신과 공동체 내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 사기의 저자는 이 책을 끝내면서 당대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도덕성의 타락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25절)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아직 그들의 첫 왕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참된 왕 곧 자신들의 선조의 하나님을 잊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과의 동맹이나 언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족속과의 국제 결혼이나 이방신을 멀리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들을 내어 쫓지 않았고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부도덕이 성행하였으며 율법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겪은 비극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귀한 왕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름부음 받으셨으며 정의와 진리로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릴 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만유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왕으로 고백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7월에도 사랑과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8월 한 달의 삶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서문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 중 복음의 핵심을 가장 포괄적이며 논리적으로 기록한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기 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하던 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에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무르던 AD 57년 경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의 중심구절을 1장 17절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로마서 전체는 죄인된 인간들이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요내용

제1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1:1-8:39)

1. 서론(1:1-17)
2. 정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인간(1:18-3:20)
3. 칭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3:21-5:21)
4. 성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6:1-8:39)

제2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함(9:1-11:36)

1.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의 선택(9:1-29)
2. 이스라엘의 현재: 하나님의 거절(9:30-10:21)
3.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11:1-36)

제3부 하나님의 의를 적용함(12:1-16:27)

1. 그리스도인의 의무(12:1-13:14)
2. 그리스도인의 자유(14:1-15:13)
3. 결론(15:14-16:27)

제 1 과

로마서(5)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

찬 송 / 235장

읽을 말씀 / 9:1-10:21

공부할 말씀 / 10:14-21

먼저 읽기

바울은 8장을 끝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논증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바울서신의 특징에 따라 이제 우리들은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써오던 서신의 틀을 깨고 갑자기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설명할 뿐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9장은 하나님의 선택 : 이스라엘의 과거, 10장은 육에 따른 이스라엘의 거부 :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11장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 : 이스라엘의 미래로 분류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9-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자신의 깊은 열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버리심 사이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긍휼

과 은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말씀 살피기

1.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가 있어야 합니다. 전파하려면 ()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연결되는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 → 전파함 → () → 믿음 → 주의 이름을 부름'의 순서가 될 것입니다(14-15절).

2. 우리는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까(17절)?

3. 들으면 다 믿게 됩니까? () 1. 예 2. 아니오
16절을 묵상하고나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4. 이스라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18-19절). 그런데 그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지 못했습니까(2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얻기까지 우리들을 향한 여러 은총의 통로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일어나도록 내 귀에 들도록 전해 준 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눕시다.
2. 이스라엘은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므로 순종치 않았습다. 왜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까? 듣기는 들되 열린 마음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다. 자기 고집으로 인해 마음이 닫혀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서 그 사람의 말을 왜곡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폄론하거나 핑계거리를 찾지는 않습니까?

제 2 과

로마서(6)

검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 송 / 347장

읽을 말씀 / 11:1-36

공부할 말씀 / 11:13-21

먼저 읽기

로마서 11장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놓고서 심각하게 묻는 엄중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을 생각한다면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럴 수 없다는 대답을 주십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바울 자신이 그 대답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장차 온 이스라엘, 곧 남겨두신 자들을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26절). 이 모든 일들은 이방인과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틀어 ‘참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공히 자랑치 못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공부할 말씀 살피기

1.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13-14절)?
2.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여 부르고 있습니까(17절)?
3.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18절)?
4. 이스라엘이 꺾인 이유와 이방인들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5. 높은 마음을 품지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1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키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구역에서, 내 친족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나누어 봅시다.
2.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으시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들마다 교회 문턱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것은 젊은이건 중장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름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초신자들에게 좀처럼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는 어떨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0-21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고쳐야 할 태도가 있으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3 과

로마서(7)

그리스도인의 시민생활

찬 송 / 358장

읽을 말씀 / 12:1-13:14

공부할 말씀 / 13:1-7

먼저 읽기

이제 로마서 제2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매우 논리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12장부터 15장 중반절까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의 삶'을 다루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가 다루어집니다. 이는 또다시 성도 개개인 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할 성령을 따르는 삶과 그리스도인의 정치, 사회, 도덕적인 삶,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맺는 삶 등의 순서로 전개됩니다.

오늘은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말씀 살피기

1.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1절)?
2.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3절)?
3.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4절)?
4. 권세에 대하여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권세를 두려워해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어떤 법칙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5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전국적인 규모의 대형사고나 비리사건들에는 거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많고 또 사회 각계각층을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전 국민의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런 사건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하면 더했지 ...'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합니까? 국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당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국가에서 세우는 장애인 시설이 당신의 동네에 들어설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정책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동네주민과 연대하여 반대투쟁에 가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교통질서 지키기, 그리고 투표하기 등에 적극 참여하고 계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시민생활에 대하여 말해 보십시오.

2. 당신은 나라에 대하여 공공요금 및 국세 등을 잘 바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속한 공동체(가정, 직장 등)에서 윗분을 마땅히 존경하고 있습니까?

제 4 과

로마서(8)

판단 중지!

찬 송 / 272장

읽을 말씀 / 14:1-15:13

공부할 말씀 / 14:1-12

먼저 읽기

세상살이에서 가장 힘겨운 문제는 일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일은 하면 됩니다. 항상 견디기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직 로마교회의 자세한 내막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도 고린도교회에서 보았던 유사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로마의 경우에는 우상숭배에서 갓 개종한 이방인들, 로마황제 숭배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뿐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사이에서 풍습과 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변론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로마교회 안에는 특이한 식사법과 절기 문제로 분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습니다.

공부할 말씀 살피기

1. 믿음이 연약한 자들(초신자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
합니까(1절)?
2.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절)?
3. 날을 중히 여기는 자, 먹는 자, 그리고 먹지 않는 자가 공통적으로 지
향해야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6절 / 참고 7-8절)?
4.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10절 하반절,
12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교회 안에서도, 구역모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도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툼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그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거나 아주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투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누군가의 행동, 우연찮게 꼬인 일 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툼 때문에 마음이 오래토록 상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최근 누군가와 다투거나 심적으로 불편을 겪으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말한 바 “본질적인 것에는 통일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우며, 모든 일에 있어서는 애정을 나타낸다”는 말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와 친구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후에는 취직문제, 자녀문제, 직장 문제, 건강문제 등을 소중히 여깁니다. 때로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박해서 신앙생활은 저 뒤로 물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묵상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8절). 이 말씀을 각자가 자기 생활에 적용하여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5 과

로마서(9)

신앙의 동역자들

찬 송 / 278장

읽을 말씀 / 15:14-16:27

공부할 말씀 / 16:1-7

먼저 읽기

이제 편지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15:14-16). 그리고 자기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이방인 사역을 자랑하고(15:17-21), 장차 어떻게 전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15:22-33).

그리고 16장에서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소개합니다. 이름이 거명된 사람만 해도 35명 내외이고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을 포함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써내려가는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을까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선한 일꾼들!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헌신된 그들. 이제 그들 중 몇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말씀 살피기

1.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뵈비를 어떻게 도와 주라고 부탁드립니다(2절)?
2. 바울은 뵈비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2절 하반절)?
3.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소개합니까(4절)?
4. 에베네도는 어떤 인물입니까(5절)?
5.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소개합니까(6-7절)?

함께 생각하며 나누기

1. 바울은 뱀피를 가리켜 '나의 보호자' 라고 소개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어떤 공동체의 합법적인 우두머리로서 후원자, 구원자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남자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매인 뱀피에게 이 단어를 기꺼이 사용합니다. 인위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는 바울의 겸손과 진실이 잘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사람들을 대할 때, 관습과 전통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겸손과 진실을 가지고 대하려고 힘쓰십니까?
2.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역과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그들입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먼저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생명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십시오.
3. 에베네로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는 누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각자의 가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1 과

전도하는 생활

찬 송 / 252장
암송할 말씀 / 막 16:15

목 상

마가복음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무엇을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2.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

3.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벧전 2:9)?

4. “온 천하에 다니며”라는 말씀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말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5. ‘만민’이라는 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대상은 어떠한가요?

복음을 ...

6. 당신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각자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개념을 설명해 보시오.

7. 복음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8.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고전 15:3-4)?

9.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롬 3:23)?

전파하라

10.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요 1:45)?

11. 복음을 전파하는 일차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요 1:41)?

12.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딤후 4:2)?

13.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한 우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벧전 3:15)?

적 용

14. 당신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면, 누구에게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같이
주기도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총현의 만나 · 1999년 7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정갑신, 김인식, 이승학 목사

구역예배공과 : 정갑신 목사

남성도구역예배공과 : 이승수 목사

· 발행처 / 총현교회 출판부 · 등록번호 / 제9-110호(1977. 10.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전화 / 552-8200 [비매품]
